

농약판매업관리인 자격 강화 취급제한기준 대상농약 집중 점검

농촌진흥청, 농약판매상 관리 강화방안 수립 · 농약음독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홍보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궁극적으로는 농약의 음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농약판매상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 적극 시행에 나섰다.

농진청은 농약의 안전관리, 판매상 점검,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을 만들어 강력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농약판매상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음독자살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비농업인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와 언론 보도 후 나온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진청은 2011년 재등록시 고독성농약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신제형 패러콧의 위해성을 추적 지속 관리하고 6월 1일 시행하는 안전마개 사용 의무화 등으로 불의의 중독사고를 예방한다. '식물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판매업관리인 자격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고시를 통해 농약안전사용교육 평가기

준의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판매상 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비농업인에 대한 특정 농약 판매현황을 점검하는 '농약판매상 점검표'를 작성하여 판매업소 별로 수시 방문,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밀수농약과 싹 채소류에 사용되는 불법농약, 불법농자재 유통금지를 위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단속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보면 신규 및 기존판매상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시 취급제한농약에 대한 판매기록 의무화를 강조하는 한편 밀수농약 및 안전마개 제도 시행, 고독성 농약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단속 실적 등 언론매체를 통한 농약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한다. 또 농협 및 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농약판매상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는 등 농약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Y